

작년 대학생 1명 교육에 1850만원 지원... 전년비 8.7% 증가

교육부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학교, 교육여건 조성 위해 투자
인건비·운영비·장학금 등 포함
장학금 연 358만원... 7.4% 올라
대출 이용 0.4%·연구비 8.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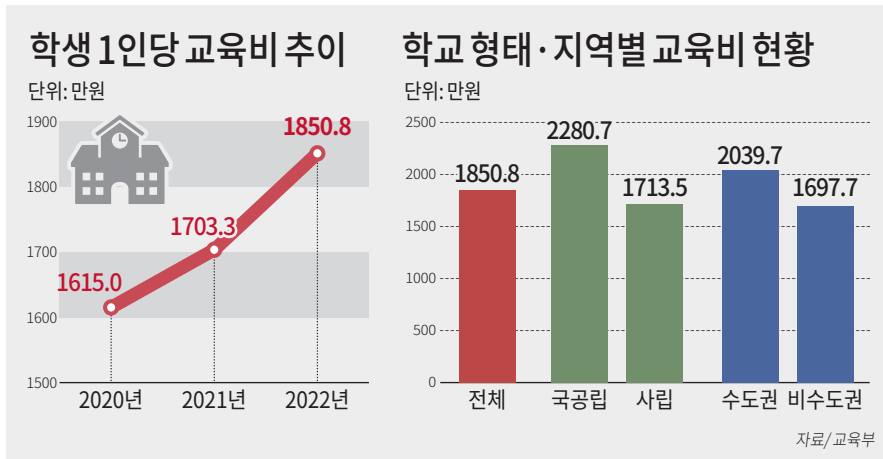
지난해 대학들이 대학생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1인당 교육비는 1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생 한 명이 받은 연 평균 장학금은 35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4% 증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제국)는 31일 총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전임교원 연구비 등을 분석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전년 비 8.7% ↑ ...연간 장학금 학생 1인당 358만

지난해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만8000원으로 1703만3000원이던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



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포함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2280만7000원으로 전년(2058만6000원)보다 10.8%, 사립대학은 1713만5000원으로 전년(1589만9000원)보다 7.8%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039만7000원으로 전년(1868만8000원)보다 9.1%, 비수도권대학은 169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전체 장학금 총액은 4조7822억원으

로 전년보다 2470억원(5.4%) 증가했다.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이 3조408억원으로 전체 63.6%를 차지했으며, 교내 장학금은 1조5822억원(33.1%)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지난해 장학금은 연간 358만3000원으로 333만6000원이던 1년 전보다 24만7000원 늘었다.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290만9000원으로 전년(271만5000원)보다 19만4000원(7.1%), 사립대학

은 378만4000원으로 전년(351만9000원)보다 26만5000원(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은 351만원으로 전년(329만8000원)보다 21만2000원(6.4%), 비수도권대학은 363만7000원으로 전년(336만3000원)보다 27만4000원(8.1%) 많은 장학금을 지급했다.

◆ 재학생 12.9% 학자금 대출 이용... 수도권·사립대 이용률 높아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만1093명으로 전년보다 1676명(0.4%) 증가했다.

이를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2.9%로 전년 대비 0.2% 높아졌다. 등록금이 비싼 편인 사립대(13.8%)가 국공립대(10.0%)보다, 수도권(13.6%)이 비수도권(12.3%)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16만1591명으로 전년보다 1만425명(-6.1%) 줄어든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한 대학생은 24만9502명으로 같은 기간 1만2101명(5.1%) 증가했다.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10%가량 증가...교비회계 적립금 8조 규모

지난해 교수들이 연구 목적으로 정부나 민간, 교내 등에서 받은 연구비는 총액이 7조9517억원으로 전년(7조3242억원) 대비 8.6%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1억116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983만4000원(9.7%) 증가했다. 국공립(1억4313만원)이 사립(1억9만원)보다, 수도권(1억5079만원)이 비수도권(802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사립 일반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8조3518억원으로 1년 전과 견줘 2165억원(2.7%) 늘었다.

적립금은 건축, 장학금, 연구, 교직원 퇴직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예치해 두는 자금이다. 기금 용도별로는 건축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목적(26.7%) ▲장학(16.8%) ▲연구(8.7%) ▲퇴직(1.0%) 순이었다.

전체 사립대는 지난해 기부금 총 6788억원을 모금해 1년 전보다 1051억원(18.3%) 늘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양천구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서부트럭터미널 일대 계획안 승인
서남권 지역 새로운 랜드마크 전망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서울시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하고 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시는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인식돼 온 곳으로, 사업 이후 지역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며 "물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 /서울시

류·판매 및 주거시설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 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부트럭터미널 일대(총면적 약 10만4244㎡)에는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로 첨단물류시설이 조성된다. 물류시설, 지원시설(업무·주택 등), 공공기여시설, 상류 및 지원시설(상업·여가 등) 등으로 이뤄진다.

물류시설에는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 풀드체인 시설, 지역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도입한다.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류시설에는 판매시설을 제공하고, 지원시설에는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시설, 금융·의료 시설 등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시설(5421㎡), 신정체육센터(1만7050㎡), 도심형 주택 984세대(공공임대주택 92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시는 2025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ik1@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 고인 '순직처리' 신청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교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유족을 대신해 말했다.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전국 9개 성과평가서 최고등급 받아

5년 연속 S 등급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이며 투자유치·혁신성장 등에서 IFEZ가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 등 우리나라 FEZ(경제자유구역)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9일 산업부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2022년도 FEZ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심의 결과, IFEZ가 부산·진해, 대구경북과 함께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

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FEZ 평가는 최초로 9개 FEZ가 모두 평가를 받았고, 전년도까지는 광주와 울산 FEZ 등 신규 지정 FEZ는 제외됐다.

IFEZ는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청라국제도시는 수소·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기업 싸토리우스 유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유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

축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FEZ 성과평가는 혁신성장·외자유치·도시계획·재무회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전국 FEZ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각 FEZ를 직접 방문,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및 기관장에 대한 리더십 면담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IFEZ가 인천의 발전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유치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졸업생 3명, 나란히 국립대 교수 임용

각 전남대·충북대·부경대로 부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이 동시에 국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인하대 화학공학과 졸업생 3명은 9월 1일자로 각각 전남대, 충북대, 부경대 교수로 임용됐다.

김용태 박사(화학공학과 02학번)는 인하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 마틴 루터 대학교(Martin-Luther University Halle-Wittenberg)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SCI급 논문 15편 등을 발표했으며, 최근 전남대 화학생명공학과(여수) 교수로 임용됐다.

장인준 박사(생명화학공학과 05학번)는 인하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

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자(Post-Doc·포닥)로 근무했다.

포닥 기간 동안 수전해와 연료전지용 촉매 개발과 물리적 증착법을 이용한 전극 소재 합성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신규 박사(화학공학과 07학번)는 인하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속-산화물, 다공성 물질의 촉매 개발과 반응공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현진 기자